



박태원 교수의

불교를 보는 실생

몇 년 전, 한 미국 청년과 근 1년 동안 함께 지낸 적이 있었다. 미국 버지니아대학에서 철학과 비교종교학을 전공한 후 불교사상에 심취해 한국에서 출가하겠다고 마음먹은 청년이었다. 불교는 머리로 해결할 일이 아니라라는 점을 잘 감았기에, 스리랑카와 일본에서 수행하다가 한국에 와본 후 왠지 이 땅에 끌려 한 사찰에서 기거하고 있었던 그를, 나는 어느 의사의 소개로 알게 되었다. 한국어도 배우며 출가 준비를 하는 동안 나와 함께 있고 싶다는 그의 뜻을 받아들여 일년을 같이 살았다.

그와의 대화는 흥미롭고 유익했다. 전혀 다른 생활환경과 문화 속에서 성장한 두 사람이 불교를 공통 본토로 나누는 대화였기에, 화제가 오르지만 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서로의 견해를 경청하곤 하였다. 특히 불교와 관련하여 인상적이었던 것은 미국인인 그의 탄탄하게 균형 잡힌 불교 이해의 수준이었다. 참선 등 자신의 불교 지식을 체험적으로 뒷받침하려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그의 불교 지식은 분명 건조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런 한국 땅에 발을 던지자마자 일본에서의 그 감각증이 일순간에 풀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한국인들의 그 어수선했던 기운은 확실히 일본과 다른 것이었습니다. 뒤잡아, 한국 사회는 한 개인의 자기 변모를 얼마든지 시도할 수 있는 공기가 가득한 것 같았습니다. 관행이나 제도로 가두어 둘 수 없는 기운들이 넘쳐나고 있을까요? 그래서 배우며 출가 준비를 하는 동안 나와 함께 있고 싶다는 그의 뜻을 받아들여 일년을 같이 살았다.

한국인은 창조적이다

지혜(智慧)가 아니었다. 그의 탄탄한 불교 이해를 호경하는 나에게, 적어도 교양 있는 미국 대학생으로 대접받으려면 자기 정도의 불교 소양은 갖추어야 하며, 대학 강좌나 서점을 통해서 그 정도의 소양을 얻을 기회는 충분하다고 하는 그의 말은, 현재 한국 대학 교육과 대학생 교양 수준의 문제점을 선명하게 일깨워 주기도 하였다. 프랑스 여배우 소피 마르소가 한국 기자에게 "나는 불교사상이 좋아요!"라고 한 말을 이색적으로 듣는 한국 학생들이 아니던가? 그런 그와의 어느 날 대화: "당신은 일본과 한국을 모두 겪어 본 3자인 셈인데, 한·일 양국 문화에 대한 감상을 듣고 싶소." "한국과 비교해 볼 때 일본은 월등하게 잘 정돈되어 있고 질서 있는 사회입니다. 나와 같은 서양인에게는 편안한 나라이지요. 그런데 나는 몇 달만에 감각장애 시달려야 했습니다. 해탈이라는 근원적 자유를 꿈꾸는 저에게 그런 사회적 공기는 숨쉬기가 쉽지 않더군요. 그런데 한국은 일본에 비해 정돈되어 있는 편이 아닙니다. 단, 거칠고 무질서하고 타인에 대한 배려가 많이 결핍되어 있는

장점이든 단점이든 사실대로 보는 용기

나는 한국인들의 파격적 기질을 높이 산다. 격(格)을 부수는 과감성, 틀 안에 갇히지 않으려는 창조적 용기의 소질이 한국인의 정신 유전자에는 꽤나 비중에 있게 새겨져 있는 듯하다. 한국은 전통 계승이 결핍되어 있다고 하는 지적도, 관행이나 과거로부터 쉽게 운신하는 기질로 풀이할 수 있다. 익숙한 것에 안주하거나 얽매지 않을 수 있는 기질은 분명 흔치 않은 능력이지요 소중한 가능성이다. 종생의 삶에 무명(無明)의 거대한 기만과 구속이 개입하고 있을진대, 한국인의 '틀 벗어내기' 자질은 무명이 구축한 그 겉걸의 성벽을 넘는 선근(善根)이 아니겠는가? '돈 되는 벤처 기질'이라며 추켜세우는 이는 외국인의 한국인론(韓國人論)을 들으며 떠오르는 감상이다. ■ 울산대 철학과 교수 (twpark@uou.ulsan.ac.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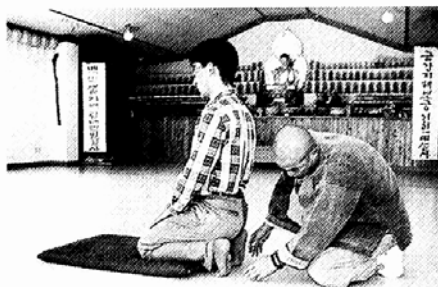
밝은 마음과 바른 몸가짐으로

참물자의 길

절은 어떻게 해야 하나

사찰에 가서 부처님 전에 절(拜)을 하지 않는 불자는 없다. 절은 삼보에 대한 예경과 상대방에 대한 존경, 참자아를 찾는 수행의 첫 관문이다. 또 자기를 낮추는 수행법인 절을 많이 함으로써 하심(下心)을 익히고 업장을 녹일 수 있다고 한다. 수행 초심자 변종호 씨(29·컴퓨터 프로그래머)는 최근 매일 아침 108배를 하고 있다. 불자로서 하루를 맞이하며, 나름대로 자신을 가다듬는 방편으로 삼기 위해서다. 108배를 끝내고 느끼는 회열감이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고 말한다. "절을 하면 육체와 정신 건강에 좋다고 해서 시작했습니다. 팔을 훌쩍 돌리고, 가볍게 샤워를 한 후 훌쩍하는 기분은 안 해본 사람은 모를 겁니다." 이런 번 세지만 절하는 방법을 정식으로 배운 적은 없다. 그저 법당에서 절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곁눈질하여 따라 해본 게 전부다. 그래서 변씨는 지난 3일 경기도 양양의 재가 불자수행도량 법왕정사를 찾았다. 절을 과연 어떻게 해야 절하는 것인지, 어떤 효과가 있는지 궁금해서다. 법왕정사 주지 청경 스님을 만나 1시간 여에 걸쳐 바르게 절하는 법과

절의 효과 등에 대해 배웠다. 청경 스님은 하루에 1천백씩 3년간 1백만 배를 회향하는 등 수십 년간의 절 수행을 통해 터득한 '절 제본을 하는 법'을 불자들에게 가르쳐 호응을 얻고 있다. 스님은 "가장 우선시돼야 할 것이 밝은 마음과 바른 표정을 갖는 것이다"고 전제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절을 하면 힘들지 않을 뿐 아니라 신체적 리듬도 좋아져 환희심이 생긴다는 것이다. 반면 몸 따로 마음 따로 하면 피부가 경직되고 혈압이 상승하여 아무리 절을 해도 번뇌방상이 풀리지 않는다. 수행은 커녕 오히려 몸과 마음을 더 어지럽히는 역효과가 날 수 있다. 호흡의 중요성도 배울 수 없다. 반복되는 절 동작과 호흡이 조화를 이룰 때 심신의 균형을 물론 수행의 효과가 배가될 수 있다는 것. 서 있는 상태에서 무릎을 꿇으려 할 때 숨을 들이쉬고, 머리를 바닥에 닿 때부터 다시 합장할 때까지 숨을 계속 내쉰다. 스님은 절 할 때 영주를 손에 쥐고 하지 말라고 당부한다. 한 손에 영주를 쥐고 숫자를 세면 일어설 때 합장을 할 수 없어 마음과 몸이 균형을 잃게 된다는 것이다. 스님은 또 일심으로 절을 하면 업을 녹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래서 한 두 번 절을 하는 것이 아니라 108배, 1000배, 1080배, 3000배, 만 배를 한다는 것. 절을 많이 하면 할수록 몸과 마음이 가벼워진다고 하는 것도 이때문이라고 한다. 특히 절을 많이 하면 번뇌방상으로 인한 불안 초조가 없어 질 뿐 아니라 건강 증진, 관절염 치료 등에 효과가 크므로 바른 현대인들에게 적합하며 하기 쉬운 수행법이라고 강조했다. 김중근 기자 (gamja@buddhopia.com)



무릎을 꿇고 허리를 곧추세운다.



몸을 앞으로 내밀어 양손을 바닥에 짚는다.



양손을 뒤집어 접촉례를 취한다.

교과공부와 禪의 접목 '새 패러다임'

2000년 기획 禪과 21세기

29 선과 교육(2)

확실히 선은 우리에게 멀다. 그리고 그것이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한 분수령이라는 수식이 붙으면 더욱 그렇다. 하지만 그렇기 않다. 교육에서 선은 원료 이상의 감축으로 다가선다. 다만 우리들이 원료의 가공에 대한 일에 소홀했음을 뿐이다. 선이 교육과 만나면서 다시 부상하기 위해서는 우선 선의 맥락과 급소를 치는 일이 있어야 한다. 선은 존재 사색을 필수적으로 요청한다. 그런데 존재는 우리들의 마음 속에 거주한다. 이런 존재를 사색한다는 것은 우리 마음을 사색하는 것과 같다. 그럼 그 사색의 주체는 누구인가? 바로 나다. 내가 주체적으로 사색의 물결을 열면서 내 속의 마음과 상면한다. 나는 누구인가? 이것은 존재물음이다. 그리고 이 물음에 대한 답은 자신만이

궁구하여 풀어야 하는 무엇이다. 누구라도 이것에 대한 해답을 줄 수 없다. 마치 물을 물가에 데리고 갈 수 있을지언정 그 물을 대신 마실 수 없는 것처럼, 선이 원료라면 그 원료의 본질은 이 두 가지, 존재사색과 주체 물음에 걸쳐 있다. 이와 같은 사색과 물음은 우리들의 외부에 있지 않다. 바로 내부에 있다. 이것을 한 마디로 묶어내면 내면에 대한 공부라고 할 수 있겠다. 동시에 외면에 대한 공부도 있을 수 있다. 여기서 외면을 결정하는 요소는 배울 내용을 의미하며 그것을 일반화시켜 놓을 때 우리는 교과라는 명칭을 부여한다. 배울 내용을 지칭하는 교과는 지식과 기능, 정보 그리고 기술을 습득하는 창구로 자리한다. 이것이 교과공부이다. 그러나 교과공부는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공부가 완성되는 것

은 아니다. 왜냐하면 교과 속에 존재의 사색과 주체의 물음을 원천적으로 설계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선생님, 이게 뭐예요?" "응, 그것은 이거란다. 이것은 내용(교과)에 대한 물음과 대답이다. "너 오늘 집에서 공부했나?" "예, 했어요. 그런데 그 문제는 너무 어려웠어요."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이것도 내용에 대한 사색이지는 몰라도 존재에 대한 사색은 아니다. 이런 체계가 우리 아이들을 구속하고 있다. 우리는 지금 교과공부의 한계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 한계의 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것이 선이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공부의 출발이 아니라 출발하여 끊임없이 나로 회귀시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선생님, 제가 누구예요?" "너는 바로 너란다." "제가 나지 그럼 내가 아

는 성이다. 이 점이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선이 부상하는 접점이기도 하다. 우리가 지금 집착하고 있는 교과공부의 패러다임은 일종의 허구적 이데올로기이다. 이것만으로는 교육의 온전한 모습이라 보기 어렵다. 그리하여 교육의 온전한 모습을 그리면 서 선에서 추창하고 있는 마음공부가 교과공부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인간, 그의 존재와 주체의 문제를 복원해 주었을 때, 존재는 비옥해지고 주체는 낡은 주체를 버리고 새로운 주체로 자신을 갱신하는 존재의 서사로 되살아난다. 그 원료가 선이고, 선의 가공품이 바로 마음공부이다. 이것이 교육에 다시 들어올 것으로 교과공부만으로 엮어지는 현 교육을 극복하고 교육의 새로운 차원으로 선이 한 단계 더 격상하는 것이라.



서명석 외국어대장사 교육학

49재 및 영가천도 범보시용으로 매우 좋은 책

Advertisement for '천수경 천수신앙' (Cheonsu-kyeong Cheonsu-shinang) by Namguk-shinwon-jae. Includes a photo of the author and text describing the book's value.

Advertisement for '생활속의 기도법' (Life's Prayer Methods) by Il-ta-kyun. Includes text about the book's practical approach to prayer.

Advertisement for '영가천도' (Yeongga-cheondo) by U-rong-kyun. Includes text about the book's focus on the afterlife and spiritual journey.

Advertisement for '지장보살본원경' (Jijang-bosal-bonwon-kyeong) by Kim-cheon-joon. Includes a photo of the book cover and text about its significance.

Advertisement for '지장신앙 지장기도법' (Jijang-shinang Jijang-gido-bup) by Kim-cheon-joon. Includes text about the book's focus on devotion to Jijang-bosal.